

세계YMCA & 세계YWCA

#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2025년 11월 9일 ~ 15일



희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

WORLD  
YMCA




WORLD WEEK OF  
**PRAYER**  
9-15 NOVEMBER 2025



**JUBILEE**  
**150 YEARS**  
OF PRAYER IN ACTION

WORLD  
**YMCA**



원본 문서 :  [ymca-ywca-world-week-of-prayer-2025-EN-1.pdf](#)

# 세계 YMCA·YW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World Week of Prayer

2025년 11월 9일-15일

---

## 희년 (Jubilee)

150년 — 기도 실천의 여정

150 Years of Prayer in Action

# 목차 (CONTENTS)

---

페이지	내용
5	공동회장 인사말 ( <i>A Joint Message from the Presidents</i> )
6	서문 ( <i>Introduction</i> )
10	서언 ( <i>Prologue</i> )
16	Day 1: 기도로 맞이하는 희년 ( <i>Prayer as Jubilee</i> )
20	Day 2: 귀향의 기도 ( <i>Prayer as Coming Home</i> )
25	Day 3: 쉼의 기도 ( <i>Prayer as Rest</i> )
30	Day 4: 정의를 위한 기도 ( <i>Prayer as Justice</i> )
35	Day 5: 용서의 기도 ( <i>Prayer as Forgiveness</i> )
39	Day 6: 실천의 기도 ( <i>Prayer as Action</i> )
43	Day 7: 연합예배 ( <i>A Collective Worship Service</i> )
50	2026년 성경읽기표 ( <i>Bible Reading Plan 2026</i> )
59	감사의 글 ( <i>Acknowledgements</i> )

# 세계YWCA와 세계YMCA 공동회장 인사말

*A Joint Message from the Presidents of World YWCA and World YMCA*

150여 년 전, 우리 두 운동은 **믿음과 교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1875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7차 YMCA 세계대회에서,  
“**11월 둘째 주일**”을 **세계기도주간의 시작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901년, YWCA가 이 아름다운 영적 전통에 기쁨으로 동참함으로써,  
기도는 단순한 신앙의 실천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어온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는 불의에 맞설 때 우리의 힘이 되었고, 고난의 시기에는 위로가 되었으며,  
희망이 승리할 때에는 감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세기 넘게, YWCA와 YMCA는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다 —  
**용기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로** 말입니다.

올해, 2025년은 세계기도주간이 시작된 지 **150주년을** 맞는 **희년의 해**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전쟁과 빈곤, 불의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고난과 갈등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이번 주간의 매일 기도문을 직접 집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평화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 속에 깃든 희망과 회복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년, 150년 — 기도 실천의 여정**

*(Jubilee: 150 Years of Prayer in Action)*

2025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한 주간, 우리는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의 가치 —  
**회복(Restoration), 새로움(Renewal), 해방(Release)** — 에서 영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은 단순히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운동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기념하며, 불의의 짐 아래 신음하는 청년,  
여성, 아동과 함께 새로이 섬으로써 헌신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념의 해를 맞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감사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자비를 품으며, 다가올 세대를 향한 희망을 고백합니다.  
올해 세계기도주간은 **믿음과 사랑,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란 걸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축복하시며,  
세계YWCA와 세계YMCA 가족에게 은총을 더하시기를 빕니다.

### **Mira Rizeq 미라 리젝**

*세계YWCA 회장 (President, World YWCA)*

### **Soheila Hayek 소헤일라 헤익**

*세계YMCA 회장 (President, World YMCA)*

# 서문 (Introduction)

글: Jens Christian Kirk, YMCA/YWCA Denmark

## 함께 기도 주간에 참여합시다!

2025년, YMCA 세계기도주간이 1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우리는 이번 자료집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각지, 그중에서도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료집 안의 **각 일차마다의 서문과 기도문은 전 세계 청년들이 직접 집필한 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도와 신앙,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편집만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YWCA와 YMCA의 기도 여정에 동참하실 때, 여러분은 혼자 묵상하며 참여할 수도 있고,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함께 매일의 기도문을 읽고, 자신의 기도를 더하며, 각 날의 **\*\*체험적 요소(Experiential Elements)\*\***를 함께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세계기도주간 자료집에는 **6일간의 묵상기도문과 7일째의 연합예배문(선택/Optiona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YMCA 150주년을 기념하며, 매일의 기도문에 앞서 **\*\*세계기도주간의 짧은 역사(Prologue)\*\***를 추가하였습니다.

## 주제에 대하여 (About the Theme)

2025년 세계YMCA·YW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  
(*Jubilee: 150 Years of Prayer in Action*)

각 날의 묵상은 **레위기 25장 10–12절**(개역개정판)에 나오는 ‘희년의 해’의 한 가지 측면을 다룹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10–12, 개역개정)

우리는 매일의 묵상 주제를 위해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함께 선정하여 기도와 실천의 영감을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말처럼 —

“나는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내 다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서야, 응답을 받았다.”

“I prayed for twenty years but received no answer until I prayed with my legs”

이번 2025 세계기도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행동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힘**을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 자료집 활용법

*How to Use This Resource*

---

## DAY 1 ~ DAY 6

매일의 목상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희년(Year of Jubilee)의 전통과 관련된 주제
- 하루의 주제와 연결되는 추가 성경 말씀
- 그날의 기도문을 집필한 청년 필자 소개
- 청년이 직접 쓴 목상과 축복의 기도문
- 더 깊은 기도와 성찰을 위한 3~4개의 기도 포인트
- 전통적 또는 현대 작가들의 추가 기도문
- 매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Creative Action)

그룹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문을 읽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 기도문 낭독 등 각 부분을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나누어 맡기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참여자가 환영받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DAY 7

일부 YWCA/YMCA 공동체는 기도주간의 마지막 날을 **\*\*연합예배(Collective Worship Service)\*\***로 마무리합니다. 이 자료집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과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 2026년 성경읽기표 (Bible Reading Plan 2026)

자료집의 마지막 부분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읽기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표가 여러분의 다음 해를 위한 더 큰 **용기, 지혜, 그리고 희망**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We'd Love to Hear from You!*

기도주간을 준비하며, 혹은 실제 기간 중에 여러분의 **계획, 신앙고백, 개인 또는 그룹의 소감과 나눔**을 해시태그 **#WWOP25**와 함께 SNS에 공유해 주세요.

# 서언 (Prologue)

**세계기도주간: 하루에서 150주년으로**

글: 도리 고먼 (Dori Gorman), YMCA of Middle Tennessee, 미국

## 11월 첫째 주일 – 기도의 날 (The First Sunday of November: Day of Prayer)

YMCA가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정하기 시작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1866년 6월, 미국 뉴욕주 올버니(Albany)에서 열린 국제YMCA대회**의 결의문에 등장합니다. 그해 11월에 작성된 한 서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월의 첫째 주일을 ‘세계 YMCA의 부흥과 번영을 위한 특별기도의 날’로 지키기로 하였다.”<sup>1)</sup>

이에 따라 **1866년 11월 4일**, YMCA 역사상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도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위원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역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복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sup>2)</sup>

## 11월 둘째 주일 – 새로운 기도의 날 (The Second Sunday of November: A New Day of Prayer)

1866년 첫 기도의 날에 몇 개의 YMCA가 실제로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집행위원회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의 여러 YMCA들이 대체로 이 날을 기도의 날로 지켰다.”<sup>3)</sup>

미국 뉴욕주 올버니로부터 1년 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새로운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둘째 주일과 그 다음 주간의 저녁시간들을 특별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지킬 것을 권고한다.”<sup>4)</sup>

또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기도의 날에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도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자.”<sup>5)</sup>

## 11월 둘째 주간 – 기도의 주간 (The Second Week of November: A Week of Prayer)

이후 ‘기도의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도의 날’에 대한 권고는 몬트리올에서부터 점차 확대되어 **한 주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기도 주간이 바로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1875년 8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YMCA 세계대회**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연합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주간으로 지킨다.”<sup>6)</sup>

이 시점부터 ‘**기도의 날과 주간(Day and Week of Prayer)**’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기도운동은 하루에서 일주일로 공식 확장되었습니다.<sup>7)</sup>

그 이후의 세월 동안, 세계기도주간 동안 열렸던 ‘청년회 기도 모임(Young Men’s Meetings)’을 위한 주제들이 매년 제안되어 배포되었으며, 매일의 주제와 그에 맞는 성경 본문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sup>8)</sup>

**1888년**,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날과 기도주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Suggestions to Associations how to Observe the Day and Week of Prayer for Young Men)」라는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주일 새벽의 첫 기도회로 시작하여,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여러 모임들**에 대한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임들에는 **설교, 전도 활동, 그리고 헌금 모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sup>9)</sup>

**1897년**, 「A Bit of History(역사 한 토막)」라는 문헌은 YMCA의 기도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연맹들이 함께 지켜 온 이 연례 기도 기간이 가져온 영적 열매는 무엇인가?

... 그 모든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야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믿는다.

**간절한 기도와 헌신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행한 어떤 일도 헛되지 않다.**”<sup>10)</sup>

## YWCA와의 연대 – 세계기도주간 (Joining the YWCA: A World Week of Prayer)

동역과 포용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901년**, YWCA와 YMCA는 “매년 세계기도주간의 주제를 공동으로 채택한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력은 **1904년에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단순히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세계YWCA와 세계YMCA연맹이 **공동의 세계기도주간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협력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sup>11)</sup>

이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1927년부터는 세계YWCA와 세계YMCA연맹 회장의 메시지가 포함되었고,  
1942년부터는 인쇄 가능한 자료집 형태로 발간되었으며,  
1948년 이후에는 매일의 성경 본문과 함께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이 더해진 형태로 발전했습니다.<sup>12)</sup>

## 150년의 기도를 기념하며 :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만, 본질은 이어지다. (Much Has Changed, Yet Much Remains: Celebrating 150 Years of Prayer)

올해, 2025년, YMCA는 매년 11월 둘째 주를 기도의 주간으로 드려 온 **150년의 여정**을 기념합니다.

1875년 11월 둘째 주에 처음 시작된 이 기도의 전통 이후, 세상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청년 남성들만이 모여 복음 전파와 모금 운동을 중심으로 드리던 작은 기도 모임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크게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기도주간 자료집(World Week of Prayer Booklet)\*은 여성들의 기도문이 포함될 뿐 아니라, 종종 여성들에 의해 인도되기도 합니다. 세계YWCA와 세계YMCA연맹의 직원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이 자료집을 만들어 가며, 이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와 폭력이나 소외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기도주간 자료집은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sm)을 지향하며, 서로 다른 교단과 전통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의 벽을 허물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운동이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YWCA와 YMCA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매년 한 주간을 고요함과 묵상, 성찰의 시간으로 헌신함으로써 삶의 행동을 위한 깊은 영감을 얻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도주간의 첫 구상자 중 한 사람이자 YMCA 신앙위원회(Devotional Committee)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엘리후 루트(Elihu Root)는, 특별기도의 날을 제정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참여를 간절히 청합니다.” “Your presence is earnestly solicited.”<sup>13)</sup>

1866년 무렵에는 일부 남성들에게만 보내진 초대장이었지만, 오늘날 그 초대의 본질과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Your presence is welcome here.  
지금 이곳에, 당신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Your presence is needed here.

무엇보다도, 이 또한 우리의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지난 15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도 함께 변화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YWCA와 YMCA가  
앞으로의 150년과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의 공동체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 주(註) 및 참고문헌 (Footnotes & References)

1. 루트, 엘리후(Elihu Root), 「청년회 서신(Letter from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1866년 11월 1일.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1866–1888,*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2. 「미국 및 영국 식민지 청년회 집행위원회 제4호(Executive Committee of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ish Provinces, No.4)」, 1866년 9월 15일.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1866–1888,*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3. 「미국 및 영국 식민지 청년회 집행위원회 제3호(Executive Committee of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ish Provinces, No.3)」, 1867년 9월 20일.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1866–1888,*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4. Ibid. (앞의 자료와 동일)
5. Ibid. (앞의 자료와 동일)
6. H.S.N., 「A Bit of History」, 1897.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History 1897 and How to Observe 1895,*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7. 「Day and Week of Prayer for Young Men, November 14–20, 1886」 (1886년 10월 5일 발행) 및  
「Day and Week of Prayer for Young Men, November 13–19, 1887」 (1887년 10월 1일 발행).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1866–1888,*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8. Ibid. (앞의 자료와 동일)
9. 「국제위원회 발행 – 청년회가 기도의 날과 주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제안(Suggestions to Associations How to Observe the Day and Week of Prayer for Young Men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1888년 11월 1일.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1866–1888,*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10. H.S.N., 「A Bit of History」, 1897.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History 1897 and How to Observe 1895,*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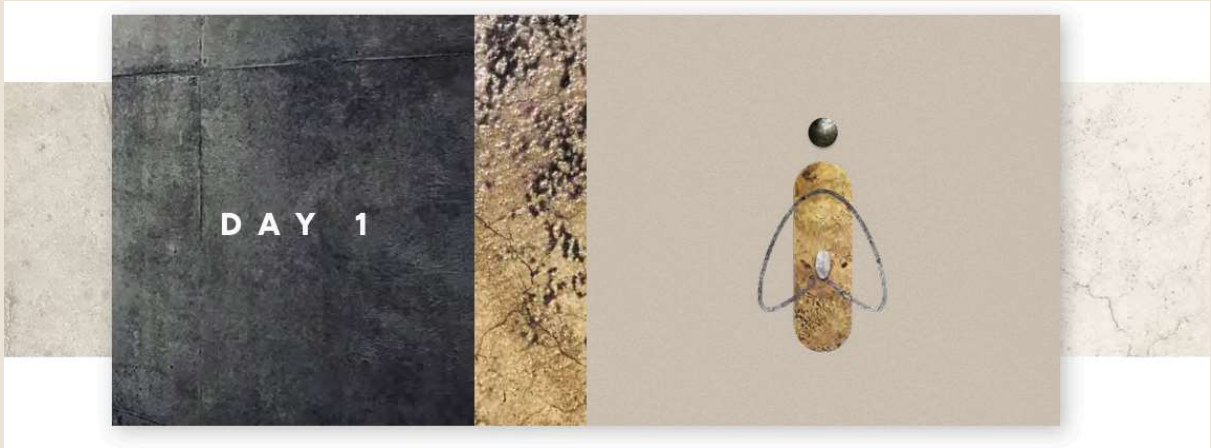
11. 「History of the Week of Prayer」, 2025년 9월 29일 접속자료.

<https://www.ymca.int/what-we-do/programmes/week-of-prayer/history-of-the-week-of-prayer/>

12. Ibid. (앞의 자료와 동일)

13. 루트, 엘리후(Elihu Root), 「청년회 서신(Letter from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1866년 11월 1일.

*YMCA Religious Work Records (Y.USA.49), Box 4, Religious Work: Day & Week of Prayer 1866–1888,*  
*Kautz Family YMCA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ies.*



## DAY 1 – 기도로 맞이하는 희년 (PRAYER AS JUBILEE)

글: 수사나 오르나 카란사 (Susana Oruna Carranza, YMCA 페루 아레키퍼)

### 청년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아레키퍼(Arequipa)에 있는 EMERG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1세 수사나 오르나 카란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YMCA 청년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묵상: 희년이란 무엇인가

‘**희년(Jubilee)**’이란 특별히 **50주년마다 맞이하는 해방과 회복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기도주간 150주년의 시작**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YWCA와 YMCA를 통해 오랫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이번 기도 주간을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초대합니다.

## 희년의 기도 (Prayer of Jubilee)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며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곁에 걸으시며  
당신의 임재의 따스함과  
성령의 속삭임을 느끼게 하소서.

이 거룩한 주간에  
우리는 온 세상 믿음의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의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됨은 우리의 차이를 넘어 지속되며,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겸손과 이해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서로를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정의와 자비로 새로워진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말에 머무르지 않고  
섬김과 화해, 연대의 살아있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온 피조물 위에 임하소서.  
상처 난 곳을 고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마음이 진리와 빛으로 향하도록 이끄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 기도 포인트

1. 잠시 침묵하며 지난 이틀 동안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2. 개인이든 공동체든, **YWCA/YMCA 안에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3. **부шив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 공동체로 모였다면, **서로의 손을 잡고** 공동체를 위해 짧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나누십시오.

## 추가 기도문 – 프란치스코 교황의 ‘희년 기도’

*(The Jubilee Prayer by Pope Francis)*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피워 주신 사랑의 불씨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이 우리를 복음의 씨앗을  
쉽 없이 가꾸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소서.  
그 씨앗들이 인류와 온 우주 안에서 자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날을 바라보며,  
희년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희망의 순례자(Pilgrims of Hope)’의 열망을 다시 일깨우게 하소서.

우리의 구속자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출처: [www.iubilaeum2025.va/en/giubileo-2025/preghiera.html](http://www.iubilaeum2025.va/en/giubileo-2025/preghiera.html)

## 창의적 실천: 기도 산책

- 이제 잠시 **밖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최소 10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머물러도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천천히 걸으며  
오롯이 자기 자신을 느껴보세요
- 걷는 동안 다음 질문을 묵상해 보세요:
  -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천천히 되짚어보세요.
  - 잠시 멈추고 위를 올려다보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풍경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오나요?
  -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은 언제였나요?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신앙의  
일을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 이 바로 그 순간처럼 느껴진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 걸으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감각이 당신이  
온전히 '지금 이곳'에 존재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 바람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온도  
감각(thermoreception)**이라 부릅니다. 공기는 어떤가요? 걸음을 옮길 때, 그  
온도와 바람의 결이 달라지나요?
  - 멈춰서서 발이 땅을 딛는 압력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압각(nociception)**입니다.  
단단함, 부드러움, 풀이나 돌맹이의 촉감을 인식해 보세요.
  - 균형감각(balance)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어떻게 서 있고, 걷고, 방향을  
바꾸는지 알까요? 이 보이지 않는 균형감각은 언제나 조용히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 손을 들어 올리거나,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보세요. 이것은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기도 산책을 통해 충분히 감사해보세요.  
**당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의 깊은 연결**을 발견하기 위한 초대로 받아들여보세요.



## DAY 2 – 귀향의 기도 (PRAYER AS COMING HOME)

글: 미르나 세바 익소이 (Mirna Seba Ixcoy, YMCA 미들테네시, 미국)

### 청년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나 파올라입니다.

17세이며,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뿌리를 둔 **1세대 히스패닉계 미국인**입니다.

네 남매 중 맏이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YMCA Achievers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글을 쓰며, 배우는 것을 사랑합니다.

낯선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제 삶의 목적은 **흐린 날의 햇살 한 줄기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요.

**미들 테네시 YMCA의 ‘어치버스(Achievers)’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과 진로의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내슈빌 지역의 10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마지막 2년 동안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진학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대학 지원서 작성, 이력서 준비,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 등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18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 묵상: 귀향의 의미

레위기에서 언급된 **희년의 해(Jubilee year)**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땅과 가족에게 돌아가 함께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장소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들, 가족이 없는 이들,**  
**혹은 돌아갈 수 없는 난민과 실향민,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YWCA와 YMCA가 세상 속에서  
**모든 이에게 ‘집’과 ‘공동체’가 되어주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귀향의 기도 (Prayer of Coming Home)

*방황하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의 어머니,  
소망 잃은 자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쉴 것임을 믿으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방패요 피난처입니다.  
푸르고 고요한 평화의 초원에 우리를 눕혀 쉬게 하시는 주님,  
살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  
길 잃은 양,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양들이  
주님의 온유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어  
참된 소망과 두려움 없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빛 안에 영원히 기뻐할 곳을 마련하셨으리라 믿나이다

피곤한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압박 받은 영혼이 쉼 곳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당신의 임재로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기도 포인트

1.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많은 거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되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2.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돌아갈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외로이 지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위로받고, 안전한 쉼터와 공동체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3. **YWCA와 YMCA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모든 이에게 집이 되고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4. **폭력, 전쟁, 기근, 트라우마로 무너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곳에 치유를,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며,  
과부와 고아를 품고 돌보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 추가 기도문 – 나디아 볼츠-웨버의 ‘복 있는 사람들’

*(Beatitudes by Nadia Bolz-Weber)*

복이 있도다, 회의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확신보다 놀라움을 택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영적으로 가난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성찬식 줄에서 새치기하는 아이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 너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며 하나님  
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복이 있도다, 죽음을 마주한 자들이여.  
사랑하는 이를 묻은 자들이여, 그 눈물로 바다를 이룬 자들이여.  
상실을 아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유산한 어머니들이여.

복이 있도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무너질 여유조차 없이 버티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아직도 ‘다 잊지 못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슬퍼하는 자들이여 — 너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복이 있도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이여.  
혼자 점심을 먹는 아이들, 병원 세탁실의 직원들,  
밤을 지새우는 노동자들과 성노동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잊힌 자들이여, 숨어 있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일자리 없는 자, 무시당한 자, 대표되지 못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팔에 새 상처를 감추는 청소년들이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 너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복이 있도다, 억울하게 누명 쓴 자들,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 삶이 늘 고단한 자들이여 —  
예수께서는 그런 이들과 함께 계신다.

복이 있도다, 신분증 없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로비스트가 없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위탁아동과 장애아동들,  
단지 안전과 사랑을 바라는 모든 아이들이여.

복이 있도다, 사람을 위해 사업적 악수를 뒤 손해 보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번아웃된 사회복지사들, 과로하는 교사들, 무료 변호사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음 따뜻한 운동선수들과  
남을 위해 헌금하는 트로피 와이프들이여.

복이 있도다, 약자를 위해 나서는 아이들이여.  
복이 있도다,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은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자격 없을 때조차 나를 용서해 준 이들이여.

**복이 있도다, 자비로운 자들이여 —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출처: [thecorners.substack.com/i/222388/a-benediction](http://thecorners.substack.com/i/222388/a-benediction)

## 창의적 실천: “예수는 나의 집” 카드 만들기

준비물: 작은 카드나 종이, 펜

1. 종이에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적으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 그 카드를 **자주 보는 곳** — 거울, 컴퓨터, 휴대폰 케이스 등에 붙여 두세요.
3. 볼 때마다 이렇게 되새기세요.

“예수님은 나의 집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부르신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오고 계신다.”



## DAY 3 – 쉬의 기도 (PRAYER AS REST)

글: 아나스타시아 베르마스 (Anastasiia Bermas, YMCA 오데사, 우크라이나)

### 청년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스타시아입니다.

29세이며, 우크라이나 남부의 햇살 가득한 도시 오데사(Odesa)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현재는 독일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매우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가을부터는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Ukraini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오데사에 있을 때부터 거룩한 삼위일체 교회(Holy Trinity Church)에서 섬겼으며,

그곳에서 YMCA와 협력하며 이 운동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늘 감동받습니다.

이번 세계기도주간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 말씀

#### 창세기 2장 1-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 묵상: 쉼의 초대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물론 전 지금 당장 당신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질문을 통해 오늘의 주제인 \*'쉼(Rest)''\*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어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가요?  
내 마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솔직히 찾고, 지금 당신의 상태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가 일어나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삽니다.  
삶의 여러 영역이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SNS, TV뉴스, 미디어의 소음에 둘러싸여, 그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럽고, 지치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멈춤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쉼의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몇 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1년 혹은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2023년은 바로 그런 "새로움과 쉼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작에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 쉼의 기도 (Prayer of Rest)

생명의 주님,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움과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의 멍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이 땅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자비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위로자,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자 주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당신의 부드러운 바람과 속삭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 삶의 시간 속에서 받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 나라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 기도 포인트

이날은 함께 침묵 속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 **몸과 영혼, 마음의 쉼**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지친 이들과 불안한 이들의 쉼**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구와 자연의 쉼**을 위해 기도합니다 —  
땅, 들판, 물, 산, 숲의 쉼을 위해

## 추가 기도문 – 케이트 보울러의 ‘지친 아침을 위한 축복’

(A Blessing for When You Wake Up Tired – Again, Today)

하나님, 아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지쳤습니다.  
이 피로함은 하루의 약속을 가리고,  
어제의 혼란과 내일의 불안을 끌고 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딘가에는 여전히  
선함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압니다.  
다만 지금은, 그곳이 손에 닿지 않을 뿐이겠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앉히시고,  
믿음을 무게감 있는 담요처럼 덮어주소서.

숨을 내쉴 때마다,  
한숨을 내쉴 때마다,  
제가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복이 있도다,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릴 때.  
우리가 필요한 심을 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오늘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출처: [katebowler.com/blessings/a-blessing-for-when-you-wake-up-tired-again-today](http://katebowler.com/blessings/a-blessing-for-when-you-wake-up-tired-again-today)

# 창의적 실천: 나의 쉼 계획 세우기 (Plan Your Rest)

## 1. 영적 쉼(Spiritual Rest)

- 조용한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 감사, 찬양, 성경 묵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 2. 마음의 쉼(Rest for the Soul)

- 스마트폰, SNS, 미디어로부터 잠시 벗어나 보세요.
-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보세요 —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취미 활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등.

## 3. 육체의 쉼(Physical Rest)

- 몸을 돌보세요.
-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산책, 가벼운 운동 등 몸이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 DAY 4 – 정의를 위한 기도 :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PRAYER AS JUSTICE : SETTING OTHERS FREE)

글: 앤서니 카이르(Anthony Khair), East Jerusalem YMCA, 팔레스타인

### 청년 필자 소개

저는 23세, 베들레헴 출신의 그리스도인 신학도이자 활동가입니다. “평화의 땅이지만 평화를 본 적이 없는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베이트사후르(Beit Sahour)의 YMCA에서 **청년 이니셔티브, 공공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 왔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글쓰기, 학구적인 또는 거리 시위 현장에서의 발언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취미는 여행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 성경 말씀

#### 누가복음 4장 16-21절 (개역개정)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편집자 주: 이 날의 기도문은 2025년 10월의 휴전 및 제안된 평화안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그 외의 본문도 동일한 시점에 편집되었습니다.

## 묵상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저와 YMCA 공동체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예수께서는 **억눌린 자의 자유와 포로 된 자의 해방**을 선포하셨지만, 우리 땅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의, 폭력에 묶인** 이들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제국의 사슬**에 메인 채 **슬픔과 절망의 벽** 뒤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자유를 위한 기도**는 단지 희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한 번도 정의를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한 회복**을 구하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의 부르심은 미가서 6장 8절의 외침과 같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때에 단지 **희망**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라고 배웠지만, 희망이 때로는 **정의를 미루고 억압받는 자를 잠재우는 식민적 언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의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YMCA는 **해방을 향한 실천**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들 안에 **자유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파괴로 흔적이 남은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는 돌(living stones)로 서서 **믿음과 저항, 굳건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애도의 기도 (Prayer of Lament)

*(앤서니의 깊은 탄식이 담긴 애통함을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울림과 힘이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야 랍(Ya Rab) —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뜻)  
불확실한 때 한가운데서,  
주의 정의가 비처럼 내려 이 상처 입은 마른 땅을 적시게 하소서.

하나님, 부상자들의 절규가 하늘에 닿게 하소서 —  
우리가 여기서 그 소리를 듣듯이, 주도 들으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통곡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메아리칩니다.

성령의 강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미사일뿐입니다.  
거룩한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타오르는 것은 천막들뿐입니다.

집들이 재가 되고,  
꿈들이 폐허가 되는 것이 애통합니다.

거룩한 흙은 무고한 피로 젖었고,  
올리브 나무는 더 이상 꽃피우지 못합니다.

거룩하다 불리던 이 땅은,  
당신의 자녀들이 쫓겨날 때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폭탄이 심판처럼 떨어질 때,  
마지막 비명을 토한 수천의 숨결과 함께 거룩함도 떠났습니다.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 말했지만,  
누가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눈물 흘리시는 그리스도도 아니십니다.

이 땅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마다  
대답은 언제나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서진 목소리를 모아 노래하고,  
산산이 깎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붙잡습니다 — 그리고 기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돌조차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폐허가 우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야 랍(Ya Rab),  
잊지 않으면서 애통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희망을 품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마침내 주의 정의가 올 때,  
천 번의 겨울 뒤에 오는 봄처럼 오게 하소서.  
미사일이 아니라 자비로,  
불이 아니라 자유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 기도 포인트

1. 억눌린 모든 이들이 영과 몸과 마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 특히 죽음과 파괴를 경험한 이들을 위해.
2. YWCA와 YMCA가 지역사회 안에서 정의와 화해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3. 하나님의 자비가 두려움·탐욕·폭력을 존엄·평화·자유로 바꾸시도록 기도합시다.
4.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흘러, 대파괴의 상흔으로 가득한 땅을 적시고 치유하도록 기도합시다.

## 추가 기도문 – 사순절을 위한 기도 — 문서르 이삭(Munther Isaac), 베들레헴 성서대학 학장·목사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깊은 고통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 전쟁과 학살, 수많은 갈등으로 우리의 가슴이 무겁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주소서. 점령의 악과 모든 불의와 불평등이 끝나게 하소서. 특히 가자지구의 형제자매들 위에 주의 빛을 비추사, 그들의 보호와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자에서 포위된 가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격 속 가장 어려운 삶을 견디는 이들을 위해, 특히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포위가 끝나게 하소서. 자비로 가자를 굽어보사, 연약하고 억눌린 자들을 붙들어 주소서. 그들에게 구호와 자유와 존엄을 허락하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억류자·수감자·유배자·노숙인·박해받는 이민·난민, 애도하는 이민가족·유가족·과부·고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무고한 피를 흘린 이들, 부상당한 자·고문당한 자·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출처: [gazalentendevotional.substack.com/p/217-a-prayer-by-rev-dr-munther-isaac](http://gazalentendevotional.substack.com/p/217-a-prayer-by-rev-dr-munther-isaac)

## 창의적 실천: 예수께 드리는 편지 (Write a Letter to Jesus)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 스트레스, 아픈 기억, 숨을 막히게 하는 짐들...

그것들을 짧은 편지로 예수께 써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 시편 107:16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 예수께 자유와 평화를 구하며, 그 문제 하나하나 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 이어서, 당신이 아는 상처 입은 누군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짧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 DAY 5 – 용서의 기도 : 빛 탐감하기 (PRAYER AS FORGIVENESS: FORGIVING DEBT)

글: 리노 쿠올 아롭(Lino Kuol Arop), Y-Global, 남수단

### 청년 필자 소개

저는 리노 아롭 쿠올, 남수단 출신의 29세 청년입니다.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며, 그 덕분에 글쓰기에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에는 제 단편소설이 아프리카 작가상(African Writers Awards)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에 YMCA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단체 '남수단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협회(South Sudan National Deaf Children and Youths)'가 남수단 YMCA와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입니다.  
그때 이후 저는 YMCA 회원이 되어, **청각장애 청년들이 YMCA 파워 스페이스(Power Spac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2, 14-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 묵상: 빛을 탐감하는 용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고,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빛진 것, 상처 준 것, 손해 끼친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공기, 먹을 것, 살아갈 땅을 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빛진 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빛진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용서의 기도 (Prayer of Forgiveness)

전능하신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남수단의 자녀들이 울부짖었으나,  
해마다 그 울음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이들이 흠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분노에 휩싸여  
복수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파벌은 파벌을, 부족은 부족을 적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자들을 위로해주소서.  
평화가 뿌리내려, 오랜 난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지시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잊은 듯 보여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 끝없는 전쟁과 슬픔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전 세계 YWCA와 YMCA 회원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기도 포인트

1. 용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2. 용서를 구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3. 타인을 용서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4. 빛진 자를 자유롭게 놓아줄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 추가 기도문 – “용서를 위한 기도 이전의 기도” — 데스몬드 투투 & 음포 투투 (Desmond & Mpho Tutu)

나는 내려놓고 용서할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혹시 주님이 그것을 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마음이 유해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다시 상처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의 눈 속에 있을 인간성을 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 또한 울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길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용서를 위한 기도에 이르기 전의 기도를 드리는 중이기에.

주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나는 아직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준 상처를 볼 용기가 있을까요?

희망의 부서진 날개 위로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영혼의 조각들이 보입니다 —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어찌 있겠습니까?

주님도 옳고, 나도 옳으며,  
동시에 둘 다 잘못된 그 경계선 위의 중간 지점에서.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찾게 하소서.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길의 시작점을 찾게 하소서.

출처:

[presbyphl.org/2020/11/06/in-need-of-the-prayer-before-the-prayer-by-rev-ruth-faith-santana-grace/](http://presbyphl.org/2020/11/06/in-need-of-the-prayer-before-the-prayer-by-rev-ruth-faith-santana-grace/)

## 창의적 실천: 빛 놓아주기 (Letting Go of Debt)

준비물:

작은 돌이나 동전 1개, 물이 담긴 그릇, 세계지도

1. **손에 돌이나 동전을 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은 상처, 원망, 혹은 ‘빛’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2. 기도 후, 그 돌/동전을 **멀리 두거나 물그릇 속에 떨어뜨리세요.**  
그것은 **‘놓아주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3.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펴고, 전쟁·폭력·고통으로 상처 입은 지역을 함께 바라보며  
**그 땅 위에 용서와 평화, 화해를 위한 기도**를 드리세요.



## DAY 6 – 실천의 기도: 기도로 나아가기 (PRAYER AS ACTION: MOVING FORWARD IN PRAYER)

글: 클라인 파우스토 엠페라도 (Klein Fausto Emperado, 필리핀)

필리핀의 클라인 파우스토 엠페라도(35세)는 아시아태평양YMCA연맹(APAY)의 종교간 협력포럼에서 주관한 다양한 평화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는 20년동안 교회에서 성가대 인도자, 지휘자, 교회 연주자, 그리고 예전 집필자로 섬겨왔습니다.

그는 필리핀 독립교회(IFI)와 더불어 필리핀 교회협의회(NCCP), 에큐메니컬 주교 포럼(Ecumenical Bishops Forum), 필리핀 에큐메니컬 평화 플랫폼(Philippine Ecumenical Peace Platform),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 여러 에큐메니컬 단체에서 창의적인 예전을 집필하고 인도해왔습니다. 클라인은 실리만 대학교(Silliman University)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 신학대학원(SUDS)에서 예전학과 교회음악 과정을 일부 수료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실리만 대학교와 신학대학원, 그리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에서 근무했으며,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의 소통담당팀에서 활동했습니다. 현재 그는 IFI 최고주교청(Obispado Maximo)의 문서화 담당 직원, 라멘토 인권수호 프로젝트(Ramento Project for Rights Defenders)의 프로젝트 담당자, 그리고 아글리파이 중앙신학교(Aglipay Central Theological Seminary)의 교회음악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7-18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묵상(Introduction)

하나님께서서는 물 위를 움직이시며 창조세계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포로된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나사렛의 젊은 여성 마리아의 태중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온 창조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 예속된 이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깊이 공감하시고 연대하시며 그 삶의 행함으로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 공감과 연대, 정의를 진정으로 행함으로서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 행동의 기도 (Prayer of Action)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와 섬김으로 부르시는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권세 앞에서 진리를 담대히 말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불의와 억압, 예속에 용기로 맞서며,  
모든 민족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도록 도우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억눌리고 예속된 자와 연대하여 행동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유의 길을 찾게 인도하시며  
믿음 안에서 담대히 희년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희년의 길을 걸어가소서.  
우리의 삶과 기도를 변화시켜 연대의 행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샘솟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위대한 희년을 만드신 주님,  
우리를 행동으로, 공감과 공동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움직이시어,

온 창조세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에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희년으로 이끄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내리기를.

기도와 행함을 통해 희년을 선포하라 부르신 거룩하신 분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마음의 불을 타오르게 해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인류와 온 창조세계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섬기라 보내신 거룩하신 분께서  
세상 모든 이에게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어  
세상의 자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소외된 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소서.

희년을 만드신 거룩하신 분께서  
당신에게 갈등 속에서도 용기와 사랑을 지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그곳에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꽃과 나무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 기도 포인트 (Prayer Points)

1.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2.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위하여
3. 학대와 불의에 직면한 여성과 아동을 위하여
4. 인권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이들을 위하여

## 추가 기도문 (Additional Prayer)

### 〈희망을 세우는 기도 – 로마가톨릭교회〉

순례자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둠과 의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걷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떡을 떼어 나누는 순간에도,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 깊은 곳에 희망과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어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며  
세례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창의적 실천 활동 (Creative Activity)

준비물: 색종이, 가위, 펜

1. 색종이 위에 자신의 손 모양을 따라 그리고, 모양에 맞춰 종이를 오려냅니다.
2. 손바닥 부분에는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문을 적습니다.
3. 각각의 손가락에는 모두가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체의 희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섯 가지 행동을 적습니다.
4. 소모임이나 예배의 기도시간에 각자가 만든 기도문을 예배 공간에 모읍니다.
5.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한 개의 기도문을 골라, 그 위에 적힌 기도주제에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안내합니다.



## DAY 7 – 연합예배 (A COLLECTIVE WORSHIP SERVICE)

**주제:** 교제로서의 기도(Prayer as Communion)

**본문:** 마태복음 6:9-13

**주제어:** 희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 (Jubilee: 150 Years of Prayer in Action)

아래의 내용은 YMCA/YWCA가 올해의 세계 기도 주간 동안 또는 종료 시기에 “희년, 150년: 기도 실천의 여정”을 주제로 각자의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교제로서의 기도(Prayer as Communion)에 특별히 집중하였습니다.

### 00:00 | 환영 및 예배 소개

인도자는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예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제안된 소개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세계 YMCA·YWCA 기도주간 15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 한 주는 희년과 기도의 시간이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교제로서의 기도를 주제로 한 공동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 00:03 | 개회 기도

**인도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회중:**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입니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기념합시다!”  
(시편 118:24-25, 현대 영어 성경 The Message 참고)

## 00:04 | 찬양

**For Everyone Born** - 셸리 에레나 머레이(Shirley Erena Murray) / 대니얼 찰스 데이먼(Daniel Charles Damon)

이 찬양은 예배 내용과 형태에 맞춰 주제와 잘 어울리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른 찬양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다른 찬양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9008\\_37.aspx](https://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9008_37.aspx)

 [www.youtube.com/watch?v=hmUIJvzRaI4](https://www.youtube.com/watch?v=hmUIJvzRaI4)

## 00:09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 00:11 | 세 명의 낭독자

세가지 성경 구절 (참가자들의 다양성과 교차성을 대표하는 낭독자를 선택하세요) - 이 예배를 주간 중에 진행한다면, 그날의 성서 본문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시편 119:33-41 (개역개정)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 복음서: 마태복음 6:9-13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00:17 | 우리의 호흡으로 기도하기

이 기도는 인도자의 인도 아래 모든 이가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천천히 낭독하는 기도입니다.  
Cole Arthur Riley의 Black Liturgies에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colearthurriley.com/writing/project-one-64g3t](http://colearthurriley.com/writing/project-one-64g3t)

**인도자:** 우리 창조주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고, 그같은 숨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함께 소리 내어 각 기도문 사이 사이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기도하는 자리로 모두를 초대합니다.

**인도자:** 숨을 들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고립에 저항합니다.

**인도자:** 숨을 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절망에 맞서 싸웁니다.

**인도자:** 숨을 들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우리의 몸에 뿌리를 내립니다.

**인도자:** 숨을 내쉬세요.

**다함께:** 이 숨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자:** 숨을 들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인도자:** 숨을 내쉬세요.

**다함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 00:21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00:23 | 창의적 예술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는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창의적인 예술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초점을 맞춘 몽타주, 묵상, 시, 시각 예술 또는 무용 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00:29 | 짧은 설교(선택) (A Short Sermon, Optional)

마태복음 6:9-13을 본문으로 하여 “교제로서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 YWCA/YMCA 리더 또는 목회자를 초빙합니다. 앞서 낭독한 다른 구절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을 추천합니다.

## 00:34 | 묵상 및 집중 기도 시간

이번 시간에는 반주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하며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며, 우리는 세상의 환희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집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소망은, 고요히 듣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리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변의 잡음과 소음을 잠잠하게 하고, 지진과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 번 함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옆에 앉아있는 분이나 방 안의 소음으로 방해 받을 때, 아주 부드럽게 다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초청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있음을 알지어다.”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가만히 있어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있어라.”

(잠시 멈춤 -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2분간 침묵을 유지합니다 - 길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0:39 | 찬양

**Still Small Voice** - 요한 글리든(Johan Glidden) / 솔리 데오 글로리아(Soli Deo Gloria)

이 찬양은 예배 내용과 형태에 맞춰 주제와 잘 어울리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른 찬양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다른 찬양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youtube.com/watch?v=tD9dlqhOCVg](https://youtube.com/watch?v=tD9dlqhOCVg)

## 00:43 | 축도

〈공동체와 연결을 위한 축복문 – 케이트 보울러(Kate Bowler)〉

 [www.instagram.com/p/C7CA\\_Nvu8jO](https://www.instagram.com/p/C7CA_Nvu8jO)

인도자: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 또한 그들을 품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우리 모두의 짐을 함께 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곁에 있는 아이들과 이미 떠난 이들도 기억하소서.  
지금도, 또 지난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 이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뿌리와 가지가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반려동물과 주님의 창조세계를,  
그들이 주는 위로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가 선택한 가족들,  
우리를 이어주는 모든 관계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모두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 욕심을 제 손에서 거두어 주시고,  
제 죄책을 씻어주소서.  
제 영혼을 잠잠하게 하소서.  
제가 홀로 짊어지려 했던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는 존재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존재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소서.

**회중:** 아멘.

**00:45 | 예배 마침**

# 2026 성경 읽기표

## JANUARY (1월)

- 1 요한계시록 21:5
- 2 시편 33:1-9
- 3 시편 33:10-15
- 4 시편 33:16-22
- 5 요한복음 2:1-12
- 6 요한복음 2:13-17
- 7 요한복음 2:18-25
- 8 요한복음 3:1-8
- 9 요한복음 3:9-15
- 10 요한복음 3:16-18
- 11 요한복음 3:22-30
- 12 요한복음 4:1-14
- 13 요한복음 4:15-30
- 14 요한복음 4:31-38
- 15 요한복음 4:39-42
- 16 요한복음 4:46-54
- 17 요한복음 5:1-9a
- 18 요한복음 5:9b-18
- 19 요한복음 5:19-30
- 20 요한복음 6:1-15
- 21 요한복음 6:16-21
- 22 요한복음 6:22-27
- 23 요한복음 6:41-47
- 24 요한복음 6:66-71
- 25 요한복음 7:37-44
- 26 요한복음 7:45-53
- 27 요한복음 8:1-11
- 28 요한복음 9:1-12
- 29 요한복음 9:13-23
- 30 요한복음 9:24-34
- 31 요한복음 9:35-38

## FEBRUARY (2월)

- 1 요나 1:1-16
- 2 요나 2:1-11
- 3 요나 3:1-10
- 4 요나 4:1-11
- 5 시편 116:1-7
- 6 잠언 1:7
- 7 잠언 2:1-8

- 8 잠언 2:9-14
- 9 잠언 3:1-4
- 10 잠언 3:5-8
- 11 잠언 3:13-26
- 12 잠언 3:27-30
- 13 잠언 4:20-27
- 14 잠언 6:6-11
- 15 에스겔 1:1-3
- 16 에스겔 2:2-3:3
- 17 에스겔 3:4-11
- 18 에스겔 4:1-8
- 19 에스겔 5:1-8
- 20 에스겔 11:14-21
- 21 에스겔 13:1-3, 10-16
- 22 에스겔 13:17-23
- 23 에스겔 33:30-33
- 24 에스겔 34:1-10
- 25 에스겔 34:11-22
- 26 에스겔 34:23-31
- 27 에스겔 36:22-25
- 28 에스겔 37:1-14

## **MARCH (3월)**

- 1 시편 95:1-7a
- 2 시편 100:1-5
- 3 요한복음 10:1-6
- 4 요한복음 10:7-10
- 5 요한복음 10:11-16
- 6 요한복음 10:22-30
- 7 요한복음 11:1-16
- 8 요한복음 11:17-27
- 9 요한복음 11:28-44
- 10 요한복음 11:45-54
- 11 요한복음 12:1-11
- 12 요한복음 12:12-19
- 13 요한복음 12:20-26
- 14 요한복음 13:1-11
- 15 요한복음 13:12-17
- 16 요한복음 13:21-30
- 17 요한복음 13:31-35
- 18 요한복음 13:36-38
- 19 요한복음 14:1-7
- 20 요한복음 14:15-26
- 21 요한복음 14:27-31
- 22 요한복음 15:1-8
- 23 요한복음 15:12-17

- 24 요한복음 16:5-11
- 25 요한복음 16:12-15
- 26 요한복음 18:1-11
- 27 요한복음 18:12-18
- 28 요한복음 18:19-27
- 29 요한복음 18:28-38a
- 30 요한복음 18:38b-19:7
- 31 요한복음 19:8-16a

## **APRIL (4월)**

- 1 요한복음 19:16b-22
- 2 요한복음 19:23-27
- 3 요한복음 19:28-37
- 4 요한복음 19:38-42
- 5 요한복음 20:1-10
- 6 요한복음 20:11-18
- 7 요한복음 20:19-23
- 8 요한복음 20:24-29
- 9 요한복음 20:30-31
- 10 요한복음 21:1-14
- 11 요한복음 21:15-19
- 12 요한복음 21:20-25
- 13 아모스 1:1-5
- 14 아모스 2:4-7
- 15 아모스 3:1-8
- 16 아모스 4:6-8, 12-13
- 17 아모스 5:4-7
- 18 아모스 5:11-15
- 19 아모스 5:21-24
- 20 아모스 7:1-9
- 21 아모스 9:11-15
- 22 시편 85:1-8
- 23 시편 85:9-14
- 24 사사기 2:6-15
- 25 사사기 2:16-23
- 26 사사기 4:1-16
- 27 사사기 6:1-10
- 28 사사기 6:11-24
- 29 사사기 6:25-32
- 30 사사기 6:33-40

## **MAY (5월)**

- 1 사사기 7:1-8
- 2 사사기 7:9-14

- 3 사사기 7:15-22
- 4 사사기 8:22-28
- 5 룻기 1:1-13
- 6 룻기 1:14-22
- 7 룻기 2:1-7
- 8 룻기 2:8-16
- 9 룻기 2:17-23
- 10 룻기 3:1-13
- 11 룻기 3:14-18
- 12 룻기 4:1-12
- 13 룻기 4:13-17
- 14 시편 68:19-20
- 15 시편 68:33-36
- 16 요한일서 1:1-4
- 17 요한일서 1:5-10
- 18 요한일서 2:1-6
- 19 요한일서 2:18, 22-26
- 20 요한일서 3:1-3
- 21 요한일서 3:4-6
- 22 요한일서 3:16-17
- 23 요한일서 3:18-24
- 24 요한일서 4:7-12
- 25 요한일서 4:17-21
- 26 요한일서 5:13-15
- 27 시편 34:5-9
- 28 로마서 8:18-23
- 29 고린도후서 1:3-11
- 30 히브리서 2:17-18
- 31 마태복음 28:16-20

## **JUNE (6월)**

- 1 요한계시록 1:1-3
- 2 요한계시록 1:4-6
- 3 요한계시록 1:7-8
- 4 요한계시록 1:9-11
- 5 요한계시록 1:12-19
- 6 요한계시록 3:14-18
- 7 요한계시록 3:19-22
- 8 요한계시록 5:1-5
- 9 요한계시록 5:6-14
- 10 요한계시록 7:1-3
- 11 요한계시록 7:9-12
- 12 요한계시록 7:13-17
- 13 요한계시록 19:6-10
- 14 요한계시록 20:11-15
- 15 요한계시록 21:1-4

- 16 요한계시록 21:5-7
- 17 요한계시록 21:9-11, 22-27
- 18 요한계시록 22:1-5
- 19 요한계시록 22:6-10
- 20 요한계시록 22:16-21
- 21 시편 97:1-5
- 22 시편 97:6-9
- 23 시편 97:10-12
- 24 요한복음 6:35
- 25 요한복음 8:12
- 26 요한복음 10:9
- 27 요한복음 10:11
- 28 요한복음 11:25-26
- 29 요한복음 14:6
- 30 요한복음 15:5

## **JULY (7월)**

- 1 사무엘상 1:1-11
- 2 사무엘상 1:12-20
- 3 사무엘상 1:21-28
- 4 사무엘상 2:1-8
- 5 사무엘상 2:18-21, 26
- 6 사무엘상 3:1-9
- 7 사무엘상 3:10-4:1a
- 8 사무엘상 8:1-9
- 9 사무엘상 8:10-22
- 10 사무엘상 9:1-13
- 11 사무엘상 9:14-27
- 12 사무엘상 10:1-12
- 13 사무엘상 10:17-27
- 14 사무엘상 12:1-5
- 15 사무엘상 12:13-25
- 16 사무엘상 13:1-14
- 17 사무엘상 15:10-23
- 18 사무엘상 15:24-31a
- 19 사무엘상 16:1-7
- 20 사무엘상 16:8-13
- 21 사무엘상 16:14-23
- 22 사무엘상 17:1-11
- 23 사무엘상 17:12-30
- 24 사무엘상 17:31-40
- 25 사무엘상 17:41-54
- 26 사무엘상 17:55-18:5
- 27 사무엘상 18:6-16
- 28 사무엘상 19:1-7
- 29 사무엘상 19:8-17

- 30 사무엘상 20:1-9
- 31 사무엘상 20:10-23

## **AUGUST (8월)**

- 1 사무엘상 20:24-34
- 2 사무엘상 20:35-21:1
- 3 사무엘상 23:14-28
- 4 사무엘상 24:1-8a
- 5 사무엘상 24:8b-23
- 6 사무엘상 31:1-7
- 7 사무엘하 1:1-4, 11-12
- 8 사무엘하 5:1-12
- 9 사무엘하 6:1-15
- 10 사무엘하 6:16-23
- 11 사무엘하 7:1-16
- 12 사무엘하 7:17-29
- 13 사무엘하 9:1-13
- 14 사무엘하 11:1-13
- 15 사무엘하 11:14-27
- 16 사무엘하 12:1-12
- 17 사무엘하 12:13-25
- 18 사무엘하 15:1-12
- 19 사무엘하 15:13-16
- 20 사무엘하 18:1-8
- 21 사무엘하 18:9-18
- 22 사무엘하 19:1-9a
- 23 사무엘하 22:1-7, 29-31
- 24 시편 57:1-12
- 25 시편 51:3-10
- 26 시편 51:11-17
- 27 시편 32:1-5
- 28 시편 32:6-11
- 29 시편 3:1-9
- 30 시편 23:1-4
- 31 시편 23:5-6

## **SEPTEMBER (9월)**

- 1 사도행전 17:16-21
- 2 사도행전 17:22-34
- 3 사도행전 18:1-8
- 4 사도행전 18:9-11
- 5 사도행전 19:1, 8-10
- 6 사도행전 19:23-31
- 7 사도행전 19:32-40

- 8 사도행전 20:1-6
- 9 사도행전 20:7-16
- 10 사도행전 20:17-24
- 11 사도행전 20:25-31
- 12 사도행전 20:32-38
- 13 사도행전 21:1-9
- 14 사도행전 21:10-14
- 15 사도행전 21:15-19
- 16 사도행전 21:27-40
- 17 사도행전 22:22-29
- 18 사도행전 23:11-22
- 19 사도행전 23:23-35
- 20 사도행전 24:1-9
- 21 사도행전 24:10-16
- 22 사도행전 24:22-27
- 23 사도행전 25:1-12
- 24 사도행전 27:1, 7-12
- 25 사도행전 27:13-26
- 26 사도행전 27:27-38
- 27 사도행전 27:39-44
- 28 사도행전 28:1-10
- 29 사도행전 28:11-16, 30-31
- 30 시편 96:1-6

## OCTOBER (10월)

- 1 시편 126:1-6
- 2 에스라 1:1-11
- 3 에스라 2:1, 64-70
- 4 에스라 3:1-7
- 5 에스라 3:8-13
- 6 에스라 4:1-5
- 7 에스라 5:1-17
- 8 에스라 6:1-12
- 9 에스라 6:13-18
- 10 에스라 6:19-22
- 11 에스라 7:1-10
- 12 에스라 7:11-20
- 13 에스라 7:21-28
- 14 에스라 8:15-20
- 15 에스라 8:21-30
- 16 에스라 8:31-36
- 17 에스라 9:1-6, 15
- 18 느헤미야 1:1-11
- 19 느헤미야 2:1-10
- 20 느헤미야 2:11-20
- 21 느헤미야 3:1-5, 33-38

- 22 느헤미야 4:1-8
- 23 느헤미야 4:9-17
- 24 느헤미야 5:1-11
- 25 느헤미야 5:12-19
- 26 느헤미야 6:1-9
- 27 느헤미야 6:10-16
- 28 느헤미야 8:1-12
- 29 느헤미야 8:13-18
- 30 느헤미야 9:1-3, 32-33
- 31 느헤미야 10:1, 29-30

## **NOVEMBER (11월)**

- 1 에스더 1:1-12a
- 2 에스더 1:12b-22
- 3 에스더 2:1-11
- 4 에스더 2:12-18
- 5 에스더 2:19-23
- 6 에스더 3:1-6
- 7 에스더 3:7-15
- 8 에스더 4:1-17
- 9 에스더 5:1-8
- 10 에스더 5:9-14
- 11 에스더 6:1-13
- 12 에스더 6:14-8:2
- 13 에스더 8:3-17
- 14 에스더 9:1-2, 20-22
- 15 시편 124:1-8
- 16 히브리서 1:1-5
- 17 히브리서 2:1-4
- 18 히브리서 4:14-16
- 19 히브리서 10:32-36
- 20 히브리서 11:1-3, 6-7
- 21 히브리서 11:8-12
- 22 히브리서 11:17-19
- 23 히브리서 11:23-29
- 24 히브리서 11:30-31, 39-40
- 25 히브리서 12:1-3
- 26 히브리서 13:1-3
- 27 히브리서 13:5-6
- 28 히브리서 13:7, 17
- 29 히브리서 13:8
- 30 히브리서 13:20-21

## **DECEMBER (12월)**

- 1 시편 117:1-2
- 2 이사야 56:1-2, 6-7
- 3 이사야 58:1-9a
- 4 이사야 58:9b-12
- 5 이사야 59:9-15a
- 6 이사야 59:15b-21
- 7 이사야 60:1-3
- 8 이사야 60:19-22
- 9 이사야 61:1-3
- 10 이사야 61:10-11
- 11 이사야 62:6-12
- 12 이사야 63:15-19a
- 13 이사야 63:19b-64:3
- 14 이사야 65:17-25
- 15 이사야 66:18-19
- 16 스가랴 1:1-6
- 17 스가랴 1:13-17
- 18 스가랴 2:5-9
- 19 스가랴 2:10-17
- 20 스가랴 8:1-8
- 21 스가랴 8:14-17
- 22 스가랴 8:20-23
- 23 스가랴 9:9-10
- 24 마태복음 1:18-25
- 25 마태복음 2:1-12
- 26 마태복음 2:13-18
- 27 마태복음 2:19-23
- 28 시편 103:1-5
- 29 시편 103:6-12
- 30 시편 103:13-18
- 31 시편 103:19-22

---

© Copyright 2025 Ökumen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Bibellesen – ÖAB. Alle Rechte  
보유.

# Acknowledgements | 감사의 글

- Susana Oruna Carranza, 21세, 아레키퍼(페루)
- Mirna Seba Ixcoy, 17세, 테네시중부YMCA(미국)
- Anastasiia Bermas, 29세, 오데사YMCA(우크라이나 /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 Anthony Khair, 23세, 동예루살렘YMCA(팔레스타인 베들레헴)
- Lino Kuol Arop, 29세, Y-Global(남수단)
- Klein Fausto Emperado, 35세, 필리핀
- Jens Christian Kirk, 교장·목사, 덴마크YMCA/YWCA
- Dori Gorman, 목사·군목, 테네시중부YMCA(미국) / Y-USA(미국)
- Sara Dzvionikova, 국제업무 담당관(International Secretary), 체코YMCA
- Joshua Hastings, 브랜드·디자인 매니저, 잉글랜드·웨일스YMCA(영국)
- Laura Avilés, 킨디오YMCA(콜롬비아 / 중남미·카리브 YMCA)
- Gustavo Espinoza, 페루YMCA (중남미·카리브 YMCA)
- Solomuzi Mabuza, 전 남아프리카공화국YMCA 회장
- Duncan Chowdhury, 거버넌스 매니저, 세계YMCA
- Bonnie Gretzner, 콘텐츠·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세계YMCA
- John Phillips,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세계YMCA
- Claire Rush, 사무총장, 아일랜드YWCA
- Dr. Suchi Gaur, 선임 디렉터(전략 및 운영), 세계YWCA
- Paleni Amulungu, 선임 스페셜리스트(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세계 YWCA
- 스페인어 번역: Manuel Quintero
- 프랑스어 번역: Jean-François Delteil
- 후원: 노르웨이 교회 구호회(Norwegian Church Aid, NCA)

- **디자인: Joshua Hastings**

**성경 읽기표:** 성경읽기를 위한 에큐메니컬 워킹그룹(Ökumen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Bibellesen), Caroline-Michaelis-Str. 1, 10115 베를린.

**성경 인용(원문/영어):** 새개정표준판(NRSV)을 사용하였습니다.

**면책 고지:** 이 책자에 수록된 글의 내용은 각 기고자의 견해로, 세계YWCA 또는 세계YMCA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삽본 책자에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세계YWCA-YMCA 기도주간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 World YMCA & World YWCA Contact Information

세계YMCA 및 세계YWCA 연락처

---

## World YMCA

Chemin de Mouille-Galand 1, 1214 Vernier  
Geneva, Switzerland

**Website:** [ymca.int](http://ymca.int)

**X & Instagram:** [@WorldYMCA](https://www.instagram.com/WorldYMCA)

**Facebook:** [facebook.com/ymcas](https://www.facebook.com/ymcas)

---

## World YWCA

L'Ancienne-Route 16, 1218 Le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Website:** [worldywca.org](http://worldywca.org)

**X & Instagram:** [@worldywca](https://www.instagram.com/worldywca)

